

“새 이름 아브라함”

창17:1-8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일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올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올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온지 24년 되던 해의 일이며, 이스마엘을 낳은지 13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상황입니다.

1. 완전히 행하라

“**창 17: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99세 되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람은 세월이 흘러 하나님을 잊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 첫번째 주신 메시지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왜 자신을 전능하시다고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해 동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혹은 믿음이 휴면 상태에 있었습니까? 혹시 좌절해버리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하라고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완전하라는 뜻은 거룩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베푸시려고 해도 받을 만한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거룩하게 되어 다시 새롭게 믿음을 갖도록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람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람은 아들이 없다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대만족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람은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의 재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람은 1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순종도 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포기해 버리는 불순종이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없는 신앙생활을 13년 동안이나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이러한 인간의 실체를 보도록 하여 자기 만족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삶이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태만에 빠져 사는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발을 하나님께 빌려 드리면 그것을 통해 최고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2.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라

“**창 17:2-4)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람에게 있습니다. 아브람은 늘 자신이 같은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많이 떠내려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람은 이스마엘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내려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새해를 맞이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치워야 합니까? 과거의 죄악들입니다. 죄악에 붙잡히면 앞으로 절대 전진하지 못합니다. 죄는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고 이것이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관철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상처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움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쓰레기가 미움입니다. 미움은 마음에 독이며 이것이 육체의 건강도 해치는 것입니다. 과거를 씻어 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말하면 안됩니다. 잘못이 있었으면 용서하고 잊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와 좌절도 청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인관계 사업 등에 실패하면 그만 자신에게 실패자의 낙인을 찍고 실패자의 이미지를 갖게 되어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져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그 일에 실패한 것이 그 사람자체가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실패는 그 일에 경험이 쌓인 것뿐, 인생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일곱 번 실패해도 여덟 번째 성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3. 새 이름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창 17: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표적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99 세에 이름을 새로 바꾸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노인이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름까지 바꾸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은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 오면 물질적인 복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수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였지만 사실 아들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방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지극히 존귀한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 앉아 있지 말고 자기만 바라보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위치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창 17:6-7)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좃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좃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축복은 계승됩니다. **“(출**

20:6)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기억될만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에게 이어줄 믿음의 유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 절에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과 기업이란 예수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은 먹는 것과 입는 것, 쾌락을 느끼는 것,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영원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천국까지 이르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람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가 일년 밖에 남지 않는 것을 아시고 아브람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히 12:2)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거룩하여 진다는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2015 년 거룩을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3.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던 시기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머물렀던 시기였음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과 그 시간들을 통해 느낀 점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4. 2015 년을 시작하며, 청산해야 할 2014 년의 나쁜 습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5. (99 세에 이름을 바꾸셔서 새롭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때, 각자 만족하지 않고 2015 년에도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할 영적인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6. 2015 년의 신년기도제목을 나누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